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7절

Tag: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12:1-7)

성경은 4차원의 영성으로 가득한 책이다. (기독교에서는 3차원을 우주 물리적 세계로, 4차원은 물리적 세계를 초월해 있는 세계로 인식, 물리학에서는 얼마 전부터 다차원을 말하고, 공간을 3차원으로 4차원을 시간으로, 11차원 12차원까지 말하는 학자도 있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4차원적 영성으로만 인식 가능하다. 사람 또한 4차원적 존재이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만 4차원에서 깨어나 3차원으로 돌아오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꾸고 있는 나는 3차원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4차원적 꿈을 꾸

고 있는 순간조차 나는 3차원의 침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팩트이다.

꿈은 시공을 초월한다. 꿈을 꿀 때 뇌속의 뉴런이 왕성하게 운동하며 전자기파를 실어나르는 것은 3차원적 현상이지만, 정작 사람은 전기자극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어떤 느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생각, 감정, 결정, 어떤 창조적 깨달음, 어떤 미래예측 등이 일어난다. 순전한 4차원적 현상인 것이다. 꿈이야말로 3차원과 4차원이 중첩되는 현상인 셈이다.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빛이 파장인지 입자인지를 연구하던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낸 것이다.

빛의 위치를 관측하려고 하면 입자인 것처럼, 관측하지 않으면 파장인 것처럼 나타났다.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모든 물체는 미세하게 떨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전자)

이 때문에 양자역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정설로 자리잡을 즈음에 미시세계를 연구하던 학자들을 통해서 양자역학이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양자역학의 황당 이론이 4차원적 이해에 접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하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한 데 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는 아인슈타인도 평생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양자역학은 물리학에 처음으로 확률을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물론 양자역학은 아직도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양자역학 ; 닐스 보어; 양자역학을 보고도 제정신인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 못 한 것이다.

로저 펜로즈 ; 이론과 실험이 일치하며, 동시에 심오한 수학적 아름다움을 갖추었지만, 이걸 전혀 말이 안된다.

리처드 파인만;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학적으로)

우주의 원리는 상대성원리로,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려고 함.

양자역학의 연구 부산물이랄까(직접 상품 아님) 그 덕분에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제조에 힌트를 주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코펜하겐 해석;(아인슈타인 거부함) 보어의 상보성원리, A일때는 B일 수 없다. 상자가 닫혀 있을 때는 중첩되어 있지만, 상자를 열어 확인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고착됨. 그러나 그 측정결과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중첩되어 있음. (관측자가 중요함) -결국 불확정성의 원리로 발전하고 물리학에 확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됨.

에버렛 해석;다중우주이론. 서로 다른 여러 세계의 존재.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우주는 죽은고양이 우주와 살아있는 고양이 우주로 나뉜다.

서울해석;해석하는 순간 불연속적으로 또 다른 세계의 시작.

실로 기괴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자얽힘이나, 양자중첩 연구가 활발해졌다.

양자 얽힘; 한 근원에서 태어난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론.

파동 함수 $\psi(x)$ 에 대한 슈뢰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i\hbar \frac{\partial |\psi\rangle}{\partial t} = \hat{H} |\psi\rangle$$

신비한 양자이동 마술. 1200km 떨어진 한 쌍의 떨어져 있는 양자를 순간이동 시키는 실험을 성공함.(중국)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동 시켰는데 그 속도는 광케이블을 통한 전송 속도보다 1조배 빨랐다. (시공간 초월)

-양자 센서, 양자 암호통신, 양자컴퓨터. 양자중력센서가 들어간 초정밀 GPS가 가능할지 모른다. (아직 상용화는 먼 미래, 중국이 앞서고 있어서 의심도 됨.)

아무튼 결론은 현대 과학이 4차원적 현상을 과학의 힘으로 실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 이론 것은 없다.

심지어 이 기술을 발전시켜 순간이동까지 도전하려고 한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시간을 3차원에서 분리해서 공간과 다른 4차원이라고도 하고, 초끈이론에서는 우주를 11차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양자역학 연구 120여년동안 4차원의 영성에 대해 시도는 했지만, 아직 이룩한 것은 없으나 그들의 전자를 통한 실험 덕분에 영향을 받아 발전한 기술들은 많다. (원소 주기율표, DNA;슈뢰딩거;생명도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1953년 DNA의 분자구조 발견. 트랜지스터의 발명;반도체의 발견; 축전지의 원리 등등)

몇 년 전 의학박사이자 뇌과학자 이븐 알렉산더가 삶과 죽음의 문턱

에서 입사체험을 하고나서 쓴 ‘천국의 증거(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에서 오늘 말씀 4절에 표현된 것과 동일한 경험을 증언하였다.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말’은 말인데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고백이다.

이른 알렉산더가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 주었다.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나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에 따르면, 말인데도 불구하고 귀 뿐 아니라 눈과 코와 입 등 오감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말이었다고 고백했다. 대단히 양자역학적인 표현이다. (사실은 양자역학을 초월하는 표현이다.) 설명하기 위한 복잡한 방정식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만약 방정식을 만든다면 더 미려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과학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느 단계, 3차원을 초월하여 4차원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누구나 초감각적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4차원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3차원에 있는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만, (결코 그것이 어렵지 않다) 3차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4차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된다.

거짓이 많을수록 3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고, 4차원에서의 거짓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12:1-7)

-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곧 거짓.

- 초월적인 4차원을 경험한 바울은 4차원의 세계에 대한 갈망 때문

에 3차원의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모두 바울처럼 4차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성경에 나온 모든 4차원적인 경험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훨씬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4차원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20:29)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복될 수 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적어도 3차원에서는)

-우리 모두는 보지 않고 듣기만 하여도 4차원을 이해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창세기의 원역사 성경: 창세기 6장

Tag:

호프마이어는 그의 논문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문헌으로 이해한 창세기 1-11장”

그러나 웬함은 “원형적인 역사로 이해한 창세기 1-11장”에서 창세기 기저에 창세기 1-11장을 전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암류(undercurrent)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발생한 일에 대한 해석서로서의 창세기. 인상과 화가의 그림처럼.

스팍스는 창세기의 저자들은 우리가 생각 하는 것처럼 역사를 기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문 “고대 역사 편찬 문헌으로 이해한 창세기 1-11장” 고대 전승의 편집

창세기는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저작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듯이 창세기를 접해야 한다. 세상과 우주를 밝히는 참고서.

창 1:1 태초. 빅뱅으로 인해서 태초가 밝혀짐. 스티븐 호킹은 괴상한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태초를 지우려고 노력함.

1:2; 땅의 혼돈;카오스.

1:3 빛이 있으라;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심. 초월적 존재.

빛은 피조물. 빛보다 더 빠른 것 있음. 시간은 3차원적 산물. 시간은 물질이 아님.

1:4 빛과 어둠을 나누심. 워홀. 블랙홀.

1:5 첫째 날;지구의 첫째 날.

1:7 궁창의 이해; 3중천

1:27 하나님의 형상;하나님의 대리자. 그는 지금의 우리와 다른 존재.

1:28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부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4절부터 또 다른 패턴의 창조이야기

2:5 아직 채소가 없다고 표현하심. 작물을 뜻하는 것 같음.

보다 구체적인 인간 창조.

2:9 선악과 등장; 아직 하와 없음. 선악에 대한 계시.

19 각종 짐승을 지으심;인간 친화적인 동물들.(?)